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

변주영**, 조은혜***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인생에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진로의사결정을 조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 재학생 중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2회에 걸쳐 FGI를 수행하였다. FGI를 통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보 탐색과 관련하여 일반계고 학생들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정보원에서 진로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요한 타인(부모님, 친구, 교·강사, 현직자)와 진로정보 관련 상호작용을 할 때 각각의 양상 및 기능이 달랐다. 둘째, 진로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따라 진로정보 활용의 수준이 상이하다. 희망 직업이나 학과가 뚜렷하면 다양한 인적 정보원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 정보에 집중하여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셋째, 진로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과 관련된 어려움은 성찰적 사고를 통해 진로 관련 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계고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실천적,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일반계고 학생, 고등학교 진로교육, 진로정보, FGI,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율연구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분별력 구성요인 탐색'을 수정·보완함

** 제1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bjy@nypi.re.kr

*** 교신저자, 불경초등학교 교사, jeh1115@naver.com

I. 서 론

1.1 연구목적

산업사회의 단선적이고 일방향적인 진로 경로와는 달리, 정보 지식 기반 사회는 각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정보를 가공 및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avickas et al., 2018; 장원섭, 2007). 진로 개발의 주체로서 개인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등 일반계고 학생들 대부분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변화는 진로의사결정의 시기를 앞당기며 고려해야 할 진로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정철영 외, 2023). 사회 및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은 가장 주된 고민으로 '진로'를 꼽으며(통계청, 2019)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계속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일반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정보를 탐색할 겨를 없이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몰두하다가(유현경·남정민, 2021), 진로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주변인의 권유나 성적에 따라 선택하고 부적응 문제를 겪는 등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Chevrier & Lannegrand, 2021). 인생에 가장 큰 결정에 직면한 일반계 고등학생이(배정수·송병국, 2015)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Super, 1992; Dawis & Lofquist, 2005), 고등학교 시기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용한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은 성공적인 진로의사결정의 핵심 요건이다(OECD, 2004; Peterson et al., 1991; 박서연·류정희, 2017; 배정수·송병국, 2015). 자기지식과 직업지식으로 이루어진 진로정보는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하여 진로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한다(Peterson et al., 1991; Reardon & Wright, 1999). 진로교육 공급자로서 정부 및 학교는 양질의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제하고, 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진로 경로의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였다(박나실 외, 2023). 또한, 양질의 진로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 폭넓은 진로정보를 잘 조직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교사 대상 활용 연수도 제공한다(교육부, 2021). 그러나 진로교육 공급자의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역할이 강조된다. 진로정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진로정보는 수요자에 의해 발견되거나 탐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박서연·류정희, 2017; 배정수·송병국, 2015; 유진은·정태순, 2020). 현실적으로 정보 제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진로교육에서 한 명의 진로전담교사가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상태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철영 외, 2023; 문찬주 외, 2023).

한편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수요자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진로정보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과정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진로교육현황조사, 서울학생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와 같이 국공립 연구기관의 패널데이터는 학생들이 진로정보 획득경로, 정보의 내용별 필요도, 진로교육활동 참여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문찬주 외, 2023; 안영은 외, 2023). 이에 더해, 맞춤형 진로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의 배경 특성 유형별로 진로정보 필요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연구하여 진로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연구가(유진은·정태순, 2020) 이루어졌다. 공급자 중심의 연구는 진로정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주관식 응답을 확인이 어려워 수요자의 진로정보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다. 진로정보 관련 연

구는 중학생(김지영·김봉환, 2015; 김지영, 2016),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이지연, 2015), 대학생(김희수, 2004; 임은미·김현진, 2002)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애 단계별 진로발달 과업이 상이하고 (Super, 1992), 학교급 및 계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배정수·송병국, 2015),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기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FGI를 수행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계고 진로교육 방안에 대한 실천적,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탐색 관련 경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활용 관련 경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평가 관련 경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진로정보의 개념 및 특성

진로정보(Career Information)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뜻하며, 교육적(Educational), 직업적(Occupational), 심리·사회적(Psychological) 정보로 분류된다(김충기 외, 2016). 진로정보의 유형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는 진로정보의 종류를 학과 정보, 진학·입시 정보, 학습 방법 정보, 진로 체험 정보, 진로 설계 정보, 직업정보, 취업 정보, 창업 관련 정보, 자기이해 정보로 명세화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진로정보 생산에 반영하고 있다(문찬주 외, 2023).

최신 진로 이론은 진로 개발 과정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고, 인지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Wyer, 2019).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진로정보는 진로 문제 해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 Peterson et al.(1991)은 자기 지식과 직업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영역은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써, 각종 의사결정 기술이나 전략은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정보의 양과 질이 빈약할 경우 양질의 진로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OECD(2004)는 수요자는 진로정보가 충분해야만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진로지도를 통해 잘 조직된 진로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증연구는 진로발달에 있어 진로정보의 정적 영향을 지지한다(배정수·송병국, 2015; 박서연·류정희, 2017), 배정수·송병국(2015) 진로결정수준의 그룹을 분리함에 있어 자기이해부족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가 1.000,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380으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자기이해와 진로 및 직업정보의 충분성이 핵심 기준임을 밝혔다. 박서연·류정희(2017)는 진로탐색효능감은 직업정보인지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beta=.79$, $p<.001$), 직업정보인지정도는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는($\beta=.31$, $p<.001$)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보고하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인지적 요인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진로정보가 충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절대적인 공급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진로정보의 특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로정보 관련 문헌에 따르면, 진로정보는 수요자가 스스로 탐색 및 인지해야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김희수, 2004; 유진은·정태순, 2020). 즉, 일반계고 학생들이 겪는 학교 진로교육 경험,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의 경험, 교사나 부모와의 상담(안영은 외, 2023) 등 다양한 경험이 어떻게 인지되느냐에 따라 진로정보의 탐색 및 활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험(Experience, 經驗)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본 것 또는 거기에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국립국어원, n.d.) 또는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 사건(something that happens to you that affects how you feel)을 의미한다(Cambridge dictionary, n.d.). 사전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 경험은 수준의 차이가 공존하는 개념이다. Dewey(1958)는 경험을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이루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경험의 수준을 구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거나 일어난 사건과 같은 막연한 경험들을 일차적 경험으로, 반성적 사고가 개입하여 다듬어진 경험을 이차적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단순히 스쳐 지나간 수준의 일차적 경험보다, 있었던 일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로 무엇인가 느끼고 학습하는 이차적 경험의 영향이 크다(조영아·이재은, 2019).

진로정보 수요자의 탐색 및 인지에는 수요자의 특성, 진로정보의 내용, 전달하는 채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Owen, Poynton, & Moore, 2020; Thompson, 2013). 김희수(2004)는 진로정보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정보 가독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요자가 진로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유진은·정태순(2020)은 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 진로교육 참여도, 학습 동기, 성별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진로정보 필요도 수준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달리하여 진로정보 인식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한편, 진로정보원과 관련하여 Thompson(2013)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툴을 다루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Owen et al.(2020)은 학생 특성에 따라 진로정보원별 도움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오래 학생은 모든 학생에게 진로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는 정보원이지만, 학교 상담사는 1학년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인터넷은 효과적인 정보원이지만 학생들은 이메일이나 1:1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정보의 개념 및 특성 관련 연구는 진로정보는 진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며, 학생들은 진로정보의 주체적 탐색을 위해서 디지털 및 온라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진로정보 탐색 행동 수준이나 정보원별 도움 정도는 개인 및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진로정보에 대한 이들의 경험 즉 방대하고 복잡한 진로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별하고 활용하는 내적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여, 일반계고 학생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 탐구할 필요가 있다.

2.2 일반계고 진로정보 관련 선행연구

고등학생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정보는 핵심 요소이다. 고등학생의 진로 목표는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여 진로대안을 좁히고 감정적인 진로 목표를 수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정철영 외, 2023). 여기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교육 및 직업정보를 뜻한다. Porfeli & Skorikov(2010)는 진로 탐색을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는 전반적 진로 탐색과 자신의 특성에 기반하여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 진로 탐색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중학교 시기에 폭넓은 탐색 후 고등학생 시기에는 구체적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진로 발달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며, 성장-탐색-확립-유지-쇠퇴의 대순환과 소순환이 반복되며 순환 과정에서 언제든지 전 단계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Super, 1992), 같은 학교급 내에서도 필요한 진로정보가 상이할 수 있다(Savickas et al., 2018).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로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먼저, 진로교육 현황조사(문찬주 외, 2023)에 포함된 진로정보 수집 방법, 진로정보 유형별 필요도 조사 결과에서 학생의 진로정보 수집 방법과 진로정보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커리어넷 63.5%, 어디가

37.6%, 인터넷 동영상 23.9%), 부모님과 가족(17.8%), 담임선생님(16.3%)을 통해 진로정보를 주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 유형별로 고등학생은 진학·입시정보(4.26점), 학습 방법 정보(4.16점), 학과정보(4.15점) 순으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였고, 자기이해정보(3.91점), 창업 관련 정보(3.68점)는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고등학생의 주제별 부모님과 대화 수준에 있어 나의 흥미와 적성, 직업, 꿈에 대한 주제(29.2%),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대한 주제(25.6%), 공부(학습)와 성적에 대한 주제(29.0%)에 대해 주 1회 정도 대화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학생 중단연구(안영은 외, 2023)에서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과 학생들의 참여 빈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 학생 중단연구에서는 진로 관련 활동을 학교, 가정, 사교육, 관련 행사를 1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참여 빈도를 조사한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활동 중 부모님과 대화를 1주에 1~2번 한다는 학생(50.6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교 담임교사와의 상담(46.03%)과 진로 관련 학교 활동(29.42%)에 1학기에 1~2번 참여한다는 응답 순이었다. 한편, 학교 진로전담교사(61.76%), 사교육 종사자, 타인(친인척, 이웃)과의 상담(41.56%)은 전혀 안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생의 자율적인 진로정보 탐색에 있어,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26.57%)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습득(26.60%) 빈도는 한 달에 1~2번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여 남학생은 전혀 안 함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진로정보의 수집 및 활용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중학생(김지영·김봉환, 2015; 김지영, 2016),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이지연, 2015), 대학생(김희수, 2004; 임은미·김현진, 2002)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김지영·김봉환(2015)은 중학생이 인식한 아버지-자녀 관계의 친밀영역($\beta=.240$, $P<.01$)과 존경영역($\beta=.154$, $P<.05$)이 자녀의 진로정보탐색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지영(2016)은 지역사회 기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의 진로정보탐색 평균은 참가하지 않은 집단보다 1.77점 높게 나타나($F=20.65$, $p<.001$) 교육프로그램의 진로정보탐색 촉진 효과를 구명하였다. 이지연(2015)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한 진로정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권리로서 아는 것에 기초한 선택(informed choice)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취업 및 일자리 정보(학생 41.3%, 교사 42.4%, 학부모 33.0%), 대학진학정보(학생 34.1%, 교사 19.6%, 학부모 22.7%)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밝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정보 관련 역량을 향상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김희수, 2004; 임은미·김현진, 2002). 김희수(2004)는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은 참여 집단만 사전-사후 검사에서 직업정보가독력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차이 8.17점, $t=3.98$, $p<.01$). 임은미, 김현진(2002)은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이 미참여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F=15.17$, $p<.001$) 밝혔다.

일반계고 진로정보 관련 선행연구는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조사되어 수요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실증연구는 환경적 요인(부모, 교육프로그램 등)이 진로정보탐색을 촉진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반계고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여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 의사결정은 일생에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일반계고 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일반계고 학생 중 이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에 생생하게 답할 수 있는 지원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구 목적과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의미 있고 풍부한 응답을 끌어내는 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인 의도적 표본 추출을 활용하였는데(Creswell, 2007), 질적 연구에서는 확률적 표집보다 의도적 표집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van Rijnsoever, 2017). 따라서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장과 개인을 선택한다고 간주하므로, 이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 선정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FGI를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의 대상자 수를 근거로(이명훈 외, 2019; 이현정·나동진·민윤경, 2023),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인 연구목적과 조사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진로정보 활용경험 및 인식수준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1~3학년 남, 여학생 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참고).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학년	성별
1	1	여성
2	1	여성
3	1	남성
4	2	남성
5	2	여성
6	3	남성
7	3	남성

3.2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고 학생 7명을 선정하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일반계고 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정보에 대한 인식, 진로정보를 탐색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면접 방식이 실용적이며 연구 문제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Creswell, 2007), FGI는 연구 참여자들이 서로 비슷하고 협력적일 때, 연구자와 일대일로 개인이 면접을 진행하는 것보다 연구 참여자가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대일 면접보다 유리하다(Krueger & Casey, 2008).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과관계가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답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tewart & Shamdasani, 2014). 그밖에 연구 대상인 일반계고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구자인 성인과 의사소통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또래와의 소통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FGI가 연구 참여자들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간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여 온라인 FGI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GI를 택하여 질문지를 기반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응답과 반응에 따라 연구자가 질문의 순서나 깊이,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질문과 응답을 자유롭게 풀 수 있으며 개인의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Creswell, 2007).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자료인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정보 인식과 활용에 대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박나실, 2020),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교과목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의 탐색, 부모 혹은 교사와 같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조력을 거쳐 재탐색. 평가를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문찬주 외, 2023; 정철영 외, 2023), 진로교육 정보를 구하는 경로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고등학생 단계에 적합한 진로발달 목표를 고려하여 FGI에 활용할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응답과 면접의 흐름에 따라 질문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병합 및 추가해서 진행하였다(〈표 2〉 참고).

〈표 2〉 주요 인터뷰 질문

연번	연구문제	질문내용
1	진로정보	진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	탐색	진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람들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3	진로정보 활용	진로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로의사결정 및 준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4	진로정보	진로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5	평가	주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진로정보를 수집, 선별, 해석하는 나의 능력 수준은 어떠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연구 대상 모집 및 조사 실시에 앞서, 이 연구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윤리 승인을 득하였다(승인번호: 202311-HR-연개금-002, 통보일: 2023.11.17.). 따라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방식을 준수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를 추측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기 위해 분석 결과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설명문과 참여 동의서, 법적 보호자 동의서를 발송하여 연구목적과 조사내용 및 조사진행방식,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및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면, 연구 대상자 본인 및 법적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연구자와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을 2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FGI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1, 2학년 학생의 경우 11월 26일에, 3학년 학생의 경우 12월 14일에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온라인 FGI에 참여할 수 있는 URL과 질문지를 사전에 발송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FGI에서 보다 풍부한 내용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FGI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녹음하였다. 연구자의 승인하에 입장이 가능한 온라인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FGI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면접이 최대 30분 정도 초과될 가능성을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사전에 협의하였다. 녹음한 파일은 전사 과정을 거쳐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의미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일부 질문은 생략하거나 추가하였다.

자료 분석은 Elo & Kyngas(2007)의 질적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구성한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표 3〉 참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중요한 내용, 의미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개방코딩을 하였으며 이후, 내용 및 맥락의 동질성에 따라 개방코딩 결과를 범주화한 후, 범주화한 결과를 추상화하였다. 또한 개방코딩부터 추상화까지의 코딩과 범주화 과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안윤정·반미정·최선희, 2023). 1차 코딩은 연구자 2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한 후, 회의를 통해 붙인 코드를 상호 비교하였고 내용이 같은 것은 표현을 변경, 내용이 다른 것은 토론을 거쳐 합의하여 통일하였다.

도출된 분석 결과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로교육 전공 박사과정생 3명의 검토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멤버 체크를 통해 의견이 잘 반영 되었는지, 이견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고 적절하다는 대답을 받았다.

<표 3> 자료 분석 틀

성명	연구문제	인터뷰 내용	개방코딩	범주화	추상화
익명	1. 진로정보 탐색에 대한 경험 2. 진로정보 활용에 대한 경험 3. 진로정보 평가에 대한 경험	인터뷰 내용 (전사 내용 발췌)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내용 요약	개방코딩을 바탕으로 범주화	범주화를 바탕으로 추상화

IV. 연구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FGI 내용을 Elo와 Kyngas(2007)의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 범주화 - 추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주제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개방코딩-범주화-추상화를 통해 도출된 주제

대주제(추상화)		중주제(범주화)		소주제(개방코딩)	
1	진로정보 탐색	1	진로정보의 종류	1	대학 입시 정보
				2	직업 정보
				3	진로 설계 정보
		2	진로정보원	1	온라인 정보원을 선호함
2	진로정보 활용	1	구체적인 진로탐색 양상	2	중요한 타인별로 상호작용 양상이 다름
				1	흥미에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함
				2	적성에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함
				3	직업가치와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함
3	진로정보 평가	1	진로정보 관련 어려움	1	막연한 진로 때문에 고려해야 할 진로정보가 방대함
				2	성적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단기적 시각에서 대안 정보를 탐색함
		2	진로정보 활용에 대한 자기 평가	1	나의 진로정보 활용 능력은 평균 이상임
				2	진로정보를 '잘' 활용하는 기준은 다양함

4.1 진로정보 탐색

이 연구에 참여한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정보 탐색의 실태와 특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대주제 ‘진로정보 탐색’은 탐색한 진로정보의 형태와 자원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대주제는 ‘진로정보의 종류’와 이 진로정보를 탐색하는 경로와 출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진로정보원’ 등 2가지 중주제로 분류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4.1.1 진로정보의 종류

첫 번째 중주제인 ‘진로정보 종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진로정보를 ‘대학 입시에 필요한 정보’, ‘대학 졸업 후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 입시 정보’와 ‘직업 정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구분하였다. 특히 진로를 직업과 같은 용어로 인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 후 대다수가 대학 진학을 선택하며 이들의 최종적인 진로 선택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시장으로 이행하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1.1.1 대학 입시 정보

이 주제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정보 종류에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 입시 정보’에 대한 인식에는 특정 대학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학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검색하거나...”(사례2)

“진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대입 입시 정보 포털인 대학 어디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사례5)

“대학 입시를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그 진로를 하게 되는지 과정 등을 살펴본 경우도 있었고...” (사례6)

“일단 커리어넷 같은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나,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이나 또한 제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학의 홈페이지 등에서 학과 소개 등에 적혀 있는 곳에서 진로정보 등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사례7)

4.1.1.2 직업 정보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정보를 ‘대학 입시 정보’라고 인식하는 것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직업 정보’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졸업 후에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학과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업의 처우, 하는 일에 대한 세부정보를 유의미한 정보로 인식하였다.

“직업 자체에 관련해서는 커리어넷에서 많이 찾아봤었고, 유튜브, 다큐멘터리나 인터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례1)

“미래에 되고 싶은 진로에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접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례4)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 기관들에서 인터뷰를 한 영상 등을 본 적 있고 그리고 현직 종사자들이 대학하는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정보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례6)

4.1.1.3 진로 설계 정보

대학 입시 정보와 직업 정보 외에도 연구 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통해 대학에 졸업하여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경력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진로정보로 인식하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계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정보는 대학 입학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며, 대학 졸업 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학과 홈페이지에는 그 대학에서 그 학과를 나와서 그 과정 등을 통해서 어디 기관과 어디 회사에 몇 명씩 취직했다는 정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례6)

4.1.2 진로정보원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혹은 누구로부터 진로정보를 탐색하는지에 따라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여 두 번째 중주제 ‘진로정보원’에 포함하였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정보 탐색시 나타난 특성에 따라 ‘온라인 정보원을 선호함’, ‘중요한 타인별로 상호작용 양상이 다름’과 같은 2가지 소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4.1.2.1 온라인 정보원을 선호함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정보를 탐색할 때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오프라인(체험, 상담, 멘토링 등)보다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웹사이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커리어넷, 각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 유튜브, 유니브 클래스, 네이버 대학 입시 관련 카페, 대학어디가,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서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 유튜버를 비롯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하며,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중에 특정 직업인의 일상을 조명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하였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특정 직업을 가진 현직자의 계정을 통해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을 탐색하거나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SNS를 활용하여 현직자에게 질문하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특정 직업에 대해 질문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진로정보를 주로 탐색하는 것은 해당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해당 경로를 통해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데에서 진로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정보를 찾은 이유는 처음에 정보에 대해 궁금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찾아봐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편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례3)

“이 진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다 유튜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를 쓰긴 하는데 대부분 유튜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례4)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대학 입시 카페 등에서 제공하는 진로정보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해당 정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이 얻는 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경로에서 같은 정보를 탐색하여 더블체크를 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정보원의 인지도 등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기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믿을 만한 진로정보를 분별해내는 각자의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진로정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거나 인기가 많은 영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또한 유망 직업 및 직종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로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영상 제작과 게시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유튜브를 선호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위키피디아랑 나무위키는 정확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한지 잘 모르는 정보에서는 다른 사이트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례3)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구독자 수로 살짝 판단이 되니까... 30~40만, 20만 구독자 수가 이라면 신뢰가 가는 채널이 있고...” (사례4)

“저는 커뮤니티랑 카페랑 사용하긴 했는데 커뮤니티는 자기 정보를 숨기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는 카페는 이제 믿을 만하다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사례6)

“어느 유튜버가 올린 이 영상과 관련된 영상의 개수라든지 영상의 좋아요 수, 조회수 등을 비교를 하면서 신뢰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보를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례7)

반면에 커리어넷이나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로정보를 비교적 신뢰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공공기관이나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로정보는 공격적인 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진로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공신력 있다고 느낄 때, 그 주체가 생산하는 진로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같은 맥락으로, 교·강사가 알려주는 포털 사이트나 정보,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를 통해 제공 받은 진로정보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진로정보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가 아닌, 해당 진로정보를 추천 혹은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한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나 진로 관련된 선생님들이 추천을 주로 많이 해주시는 포털 사이트여서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5)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학원가에서 준 정보, 주변 지인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제대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비해서는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7)

4.1.2.2 중요한 타인별로 상호작용 양상이 다름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 친구, 교·강사, 현직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통해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부모님과 친구는 진로정보를 탐색하는 주된 자원은 아니었으며, 해당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교·강사, 현직자 등)으로부터 진로정보를 탐색하였다. 상호작용의 특성 및 기능별로 부모, 친구, 교·강사, 현직자 4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① 부모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진로정보를 얻는다고보다 자신이 얻은 진로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수립한 진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중학생 당시에 고등학교 입시 준비에서는 부모님의 자원을 통해 진로정보를 탐색한 적 있으나 현재는 부모님의 자원이 주된 자원은 아닌 것을 파악하였다. 즉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중학생 시절보다 보다 자율적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도 미술 쪽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면서 진로도 좀 알게 되고 거기 관련해서도 학과나 어떤 게 있는지도 알게 돼서 그것도 같이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정했던 것 같아요.” (사례2)

“일단 부모님하고는 중학교 때는 특목고라든지 다른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연관이 있는 정보를 공유하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고요.” (사례7)

② 친구

연구 참여자들에게 친구는 또래 집단이라는 점에서, 부모님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부담감 없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추천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찬 받는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기분이 좀 많이 좋긴 합니다.” (사례6)

“친구들하고는 자유롭게, 부모님보다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평가나 조언 등의 말을 얻는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러한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7)

대신에 친구는 진로정보를 수집하는 주된 자원은 아니었으나, 친구의 진로정보 탐색 방법에 대한 인지는 있었다. 즉 자신의 어떤 친구는 진로 탐색을 위해 어떠한 진로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를 진로정보를 수집하는 주된 정보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 얼리버드에 가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얼리버드를 신청하고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또 진로 체험 탐방, 견학을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례3)

③ 교·강사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님과 친구와는 달리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로부터 진로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진로정보 중에서도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교사와는 학원 강사와는 달리,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진로정보 수집이나 진로에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원 강사는 기능적인 측면을 담당한다고 여기는 반면에 학교 교사와는 정서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학원 쌤들은 이미 대학교를 나오신 경험자 분들이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입시 전형을 물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례2)

“그냥 친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친하지 않으니까 말 걸기 어려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학생이 먼저 나서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애초에 친화력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고자 하면 받아주시겠지만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꺼려지는 게...” (사례7)

④ 현직자

부모님, 친구, 교·강사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해당 직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직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해석되며, 연구 참여자들은 현직자로부터 진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는 학교에서 현직자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멘토링, 강연이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SNS 메신저를 통하여 현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학 학과 정보와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을 쓰신 분이랑 연락을 닿게 되어서 메신저 등으로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고… (중략) 그때 당시 페이스북 메신저라는 앱이 있었는데 그걸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례6)

“로봇 관련해서 대학교 교수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 직종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들을 약간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7)

4.2 진로정보 활용

2번째 대주제인 ‘진로정보 활용’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정보를 탐색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정보를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과 경험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2번째 대주제에는 자신이 수집한 진로정보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경험에 대해 주로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구체적 진로 탐색 양상’과 같은 1가지 중주제로 분류되었다.

4.2.1 구체적 진로 탐색 양상

연구 참여자들이 탐색한 진로정보를 토대로 진로를 탐색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 직업가치 등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진로 탐색 양상’이라는 중주제를 3가지 소주제로 분류하여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흥미, 적성, 직업가치에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함으로 명명하였다.

4.2.1.1 흥미에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함

연구 참여자 중 대부분은 자신의 흥미를 기반으로 진로정보를 선택하여, 흥미는 진로정보 선택의 1차적인 거름망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하였던 진로 관련 심리검사나 다양한 경험, 활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인지하여 해당 영역을 중심으로 진로정보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교과목과 연계하여 진로를 탐색하며, 부모님과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학 입시 준비와 향후 직업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중주제 ‘진로정보원’과 ‘구체적 진로 탐색 양상’은 중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평소에 옷에 관심이 많았고 예전부터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런 손재주를 활용해서 옷을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도 부모님들이 얘기해 같이 상의 해보면서 나온 거긴 한데…” (사례2)

4.2.1.2 적성에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함

흥미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을 토대로 진로정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와 함께 적성은 진로정보 선택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교과목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영역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잘한다는 인식과 효능감을 가질 때, 해당 영역에서의 진로정보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인지하여 해당 영역을 중심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며, 자신이 어떠한 과

목 성적이 우수하고 그 과목에 흥미도 느낀다면 그 과목을 기반으로 관련 학과 및 해당 학과를 졸업하여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자신이 미래에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 및 탐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체험을 하는가 하면 관련 전문가를 만나서 현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학과에 맞는 성향 같은 그러한 정보 등이 인터넷에 영상 같은 걸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영상이나 글 같은 걸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저랑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중략) 학교를 다니면서 진로 시간 같은 데에서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나는 어떤 성향이라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제가 어떤 성향인지도 알아보게 되었고...” (사례7)

4.2.1.3 직업가치와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함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직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미래 전망, 소득, 실내 활동, 봉사 등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직업에 흥미를 느껴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체험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의 특성이 자신이 우선시하는 직업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진로의사결정을 유예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른 직업을 탐색하고자 진로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육체적 노동을 많이 기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고...” (사례4)

그러나 뚜렷하지 않은 직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진로정보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탐색 및 선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최근 현상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의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 공부도 재밌어서 역사 교사를 희망했는데 요즘 교권이 떨어지고 있다고 다시 다른 걸 해볼까 고민이기도 하고, 친구 따라서 위탁교육을 가려고 했는데 또 주변에서는 제 성적이 아깝다고 하고...” (사례5)

4.3 진로정보 평가

3번째 대주제인 ‘진로정보 평가’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인식,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한 결과, ‘진로정보 관련 어려움’, ‘진로정보 활용에 대한 자기 평가’와 같은 2가지 중주제로 분류되었다.

4.3.1 진로정보 관련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에 대한 이유는 진로정보 수집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닌, 자신의 진로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이 진로 목표와 일치하지 않아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정보 관련 어려움’에 대한 2

가지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막연한 진로 때문에 고려해야 할 진로정보가 방대함’과 ‘성적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단기적 시각에서 대안 정보를 탐색함’으로 명명하였다.

4.3.1.1 막연한 진로 때문에 고려해야 할 진로정보가 방대함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있었으나, 진로정보 관련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직업과 이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너무 막연해서’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자신의 특성(흥미, 적성, 직업가치 등)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활용까지 이어지기에는 심층적이지 않고 얇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전 그 꿈이 너무 막연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몰랐었는데 이때 꿈에 대한 정보를 찾기보다는 먼저 내 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사례3)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진로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관심사도 모르겠고 또 제가 뭘 하면 좋은지를 몰라서...” (사례5)

4.3.1.2 성적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단기적 시각에서 대안 정보를 탐색함

자신이 현재 탐색하고 있는 대학 전공이나 직업이 자신에게 부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적이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진로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는 그 기준에 자신이 미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직종이나 전공의 범위를 넓혀 차선택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제가 원하는 진로에서 요구하는 성적이나 학력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의 진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차선택의 진로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공학 계열인데 제가 아까 말한 그 미래 대체에너지 관련 학과가 아닌 화학공과나 생명공학과 그런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과학 선생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례3)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 이렇게 성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 성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사례6)

한편, 성적과 같이 진로의사결정이 제한되었을 때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안적 진로 경로를 탐색하기보다는 아예 재수를 고려하는 등 대학 입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계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적에 따라 선택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이라고 판단된다.

“근데 만약에 의대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대학을 안 가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례1)

“정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진학을 하든 아니면 재수를 하든 등의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또는 이제 추가적인 대학 진학 말고도 막 자격증 같은 것들 있잖아요.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사례7)

4.3.2 진로정보 활용에 대한 자기 평가

3번째 중주제 ‘진로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로정보 활용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인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2개의 소주제로 구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또래 집단에 비해서 낮다고 여겼으나, 기준은 각자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1 나의 진로정보 활용 능력은 평균 이상임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정보를 활용하는 자신의 능력을 대부분 평균, 평균 이상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대부분 진로에 대한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로정보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상태였으나, 평균 혹은 평균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신이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었다. 자신의 진로정보 활용 능력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근거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정보를 이전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라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확신과 같은 내적인 기준이 아닌, 또래 집단을 비교로 하여 자신의 진로정보 활용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관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주변 또래 집단(동일한 일반계고 학생들) 내에서도 진로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범위는 넓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집단 내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저의 능력이 평균보다는 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진로가 뚜렷한 애들도 있지만 대학의 네임밸류만 보고 일단 진학을 원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저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세우고,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6)

4.3.2.2 진로정보를 ‘잘’ 활용하는 기준은 다양함

진로정보를 ‘잘’ 활용한다는 의미는 연구 참여자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탐색한 진로정보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어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탐색한 정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신이 수집한 진로정보를 이해하여 진로의사결정까지 도달해야 진로정보를 ‘잘’ 활용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진로정보 활용의 의미에는 실제로 진로정보를 활용하여 어떠한 행동 혹은 결과로 도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직업에 대해 자기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1)

“저는 막연한 것들뿐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보면 사회적인 이미지로는 하루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한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중략) 이런 인식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경영학과로 진로를 잡아서 뭘하려면 이 진로 목표를 학교와 생기부와 연결시켜서 하면 된다는 그런 영상을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고...” (사례4)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정보 탐색, 활용, 평가 경험 및 인식을 탐구하여 내적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진로교육 현장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 연구기관의 패널조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문찬주 외, 2023; 안영은 외, 2023), 일반계고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정보원을 활용하여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있었으나 진로정보원별로 목적 및 기능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이는 진로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유진은, 정태순, 2020; Owen et al. 2020; Thompson, 2013)를 지지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계고 학생들의 정보원별 인식을 살펴보면, 부모님의 경우에는 주로 지원의 기능이 강하고, 친구들은 정보교류보다는 서로 심리적으로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지지적 기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교사에게는 친밀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진로정보에 대한 대화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진로정보 제공과 교류에 앞서 라포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직자에게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수단 및 방법을 동원하여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경로로는 멘토링, 기관탐방, 직업인 초청 강연, SNS에서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하는 것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직자로부터 얻는 정보는 그 직업을 갖고 싶다는 자신의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진로정보 활용의 수준은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학교급 내에서도 진로발달 수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학생에게 주로 요구되는 전반적 진로탐색으로 회귀할 수 있으며(Porfeli & Skorikov, 2010; Super, 1992) 이에 같은 학교급에서도 학생 개개인에 따라 필요한 진로정보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할 수 있다는(Savickas et al., 2018) 진로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있다면 해당 진로나 직업의 종사자, 관련된 사람에게 진로정보를 구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하는데 활용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진로에 유의미한 정보로 판단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진로정보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에게 어떠한 전공이나 직업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포털사이트나 대학 입시 카페,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진로에 유의미한 정보로 통합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한편, 이 연구에서 확인된 자신의 흥미, 적성, 직업가치와 일치하는 진로정보를 선택 및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은 양질의 진로의사결정, 자아실현,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한다는 점에서(Peterson et al., 1991; Reardon & Wright, 1999; Super, 1992; Dawis & Lofquist, 2005)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기이해 관련 정보를 진로정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긍정적인 정서로 통합되기까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래집단의 수행에 대한 관찰 및 비교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개인의 진로발달에는 있었던 일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느끼고 학습한 이차적 경험의 영향이 크다는 경험학습이론(Dewey, 1958; 조영아·이재은, 2019) 이론을 지지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진로정보는 스스로 발견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박서연·류정희, 2017; 배정수·송병국, 2015; 유진은·정태순, 2020)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진로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을 강조하는 것은(정철영 외, 2023; 문찬주 외, 2023), 학생이 진로 관련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의 기반(박서연·류정희, 2017)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교육 현장에 대한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고 학생들이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진로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정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에서 접속하는 플랫폼, 웹사이트, 앱을 활용하여 진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챗GPT를 활용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단지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에서만 이들이 진로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진로정보를 대입 입시 정보, 직업 정보에 한정하여 인식하였으며, 대입 입시 정보와 직업 정보를 중심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이나 목표, 가치관을 진로 특성으로 매치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 생애가 연장되고 평생직업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흐릿해진 현재(장원섭, 2007), 전 생애에 따른 진로 발달이 요구되는 실정임으로 단순히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로 발달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정철영 외, 2023). 따라서 진로교육 현장에서는 대학 입학, 직업 선택을 넘어선 학생 개인의 삶의 비전이나 목표와 같은 보다 거시적인 영역에서의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학년 학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에 FGI를 진행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수시 모집에 지원하지 않고 모두 정시 모집에 지원할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진로정보 수집, 활용 과정이 다른 대입 전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계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경로에 따라 진로정보 관련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내용에 관심을 가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자발적인 의사를 밝힌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선택한 만큼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일반계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동기 역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진로 관련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궁금해서 FGI에 나오게 되었다고 밝힌 만큼 진로 미결정 학생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무동기인 학생들은 이 연구에서 탐색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 동기 수준을 가진 국내 일반계고 학생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일반계고 학생의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관련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n.d.). 경험의 정의. Retrived (2023.3.17.)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_Result.do,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 김지영(2016). 지역사회 기반 직업체험이 중학생의 진로정보 탐색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9(4), 89-110.
- 김지영·김봉환(2015).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관계가 자녀의 진로 정보탐색 및 합리적 의사 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1), 21-39.
- 김충기·황인호·장성화·김순자·모종수(2016).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동문사.
- 김희수(2004). 진로 정보 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탐색 자기 효능감과 직업 정보 가독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2), 187-197.
- 문찬주·김민경·최광성·황승록·방혜진·김민석(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수탁사업 2023-05-01).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나실(2020).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나실·정윤경·정지은·안중석(2023). 2022 개정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었나? KRIVET Issue Brief, 252, 1-4.
- 박서연·류정희(2017). 진로탐색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직업정보인지도의 매개효과. **직업과 자격 연구**, 6(2), 167-185.
- 배정수·송병국(2015).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고등학생 진로결정수준 결정요인 우선순위 탐구. **진로교육연구**, 28(4), 79-105.
- 안영은·이호준·임희진·김유원·이해나·조혜원·이은지·정윤숙(2023).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2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서교연 2023-92).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안윤정·반미정·최선희(2023). MZ세대 초기경력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 구성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2), 109-136.
- 유진은·정태순(2020). Group Mnet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고등학생의 진로 정보 필요도 예측 변수 탐색. **직업능력개발연구**, 23(3), 88-113.
- 유현경·남정민(2021). 일반고 학생의 자아인식 및 수업태도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모와 대화에 의한 진로탐색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490-504.
- 이명훈, 정철영, 김인곤, 이건남, 전승환, 임소현, 이유우, 이승엽(2019).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산업체 인사 담당자 및 고졸 재직자의 인식 및 요구분석. **직업교육연구**, 38(4), 85-110.
- 이지연(2015).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 실태와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서울: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현정, 나동진, 민윤경(2023).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본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 초기 창업자의 경험과 자원 전략.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3), 39-55.
- 임은미, 김현진(2002).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18, 425-443.
- 조영아·이재은(2019). 국내 중등단계 진로관련 경험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진로교육연구**, 32(1), 35-60.
- 장원섭(2007). 맥락 중심의 평생 진로교육 제안. **진로교육연구**, 20(2), 1-13.
- 정철영·임정훈·이승엽·이영광·임소현·임한려·이유우·박선영·최로미·조은혜(2023). **진로교육개론**. 학지사.
-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 보고서(11-1240000-000165-10). 통계청.
- Cambridge dictionary(n.d.). the definition of experience. Retrieved (2024.3.17.) from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experience>.

- Chevrier, B., & Lannegrand, L.(2021). How Does College Entrance Selection Influence Academic Motivation?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62(6), 725-730.
-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Davis, R. V., Lofquist, L., & England, G.(2005). The Minnesota theory of work adjustment. **Career Development**, 1, 1993-2012.
- Dewey, J.(1958). Experience and nature. Courier Corporation.
- Elo, S., & Kyngäs, H.(2007).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Krueger, R. A. & Casey, M. A.(2008).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OECD Publishing.
- Owen, L., Poynton, T. A., & Moore, R.(2020). Student preferences for college and career information. **Journal of college access**, 5(1), 67-100.
- Peterson, G. W., Sampson, J. P., Reardon, R. C., & Lenz, J. G.(1996).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career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 423-475.
- Porfeli, E. J., & Skorikov, V. B.(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 Reardon, R. C., & Wright, L. K.(1999). The case of Mandy: Applying Holland's theory and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3), 195-203.
- Savickas, M. L., Porfeli, E. J., Hilton, T. L., & Savickas, S.(2018). The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138-152.
- Stewart, D. W. & Shamdasani, P, N.(2014). Focus Group: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
- Super, D. E.(1992).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In D. H. Montross & C. J. Shinkman (Eds.),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p. 35-64). Charles C Thomas, Publisher.
- Thompson, P.(2013). The digital natives as learners: Technology use patterns and approaches to learning. **Computers & Education**, 65, 12-33.
- van Rijnsoever, F. J.(2017). Saturation: A simulation and guidelines for sample sizes in qualitative research. **PLoS ONE**, 12(7), 1-17.
- Wyer Jr, R. S. (2019). Cognitive organization and change: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Psychology Press.

[abstract]

A qualitative inquiry o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related to career information collecting and usage*

JooYoung Byun**, Eunhye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general high-school students' experience related to collecting and using career information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two focus group interviews of 7 general high-school students sample which is diverse of their gender and grade. The main findings of FGI were as follows. First, general high-school student use various resource to collect career information. In case of human resource, the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important people in their lives is different. Seco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level influences how they utilize career information. The group of students that decide on their career clearly try to integrate career information to specify their career path. however, the others who have a superficial perception of their career path try to collect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university not something related their long term goal. Third,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evaluate their experience related to career information as a positive base of their career development. Even though they go through hardship, they find its own meaning with reflective thinking. Based on the main findings above, We present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KeyWord: General highschool students, highschool career education, career information, FGI, qualitative inquiry

* This paper based on the part of 2023 Korea Youth Policy Institute's research project, 'Exploring Conceptual model of Career Savvy fo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 First Autho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assistant, bjy@nypi.re.kr

*** Corresponding author, Buljung Elementary School Teacher, jeh1115@naver.com